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말하는 책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 백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지음 | 다산글방 | 320쪽 | 값 11,000원

“대리지 말고 말로 하세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예요.”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다중의 고통에 처해 있다. 인종적 편견, 임금체불, 인권유린, 불법체류자의 불안한 신분 등 그들은 한국사회 인권사각지대에서 단 하루도 편히 살아갈 수 없다. 이 책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에서 발간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제도적 문제점을 낱알이 밝히고 있다. 올바른 외국인 이주노동자 제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된다. 부록으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및 실시 방안,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이주노동자 관련 ILO 조약 및 권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십시일反》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 창비 | 215쪽 | 값 9,000원

박재동, 이우일, 이희재, 홍승우 등 만화가 10인의 인권 만화. 만화의 유쾌함과 인권의 유익함을 접목해 보려는 의도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한 이 책은 유명만화가 10명이 1년여에 걸쳐 작업했다. 사회계층, 빈부격차, 노동, 교육, 국제분쟁,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적 소수자 등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의 실태를 총망라해 쉽고 재미있게 보여주는 백서의 구실을 한다.

《말해요, 찬드라 불법대한민국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삶의 이야기》

이란주 지음 | 삶이보이는창 | 260쪽 | 값 9,000원

1995년부터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온 저자가 전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 부당한 노동 조건, 삶터에서의 차별, 불안정한 결혼, 아이들 문제 등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겪는 대부분의 사례를 들려주면서 불법과 차별의 천국인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주소를 보여준다. 자신이 불러들인 매형이 빚만 잔뜩 진 채 위조여권을 받고 한국에서 죽어 가는 것을 지켜봐 했던 조조모의 이야기, 인간 샌드백처럼 집단 구타를 당하고 허리를 다친 리폰의 이야기, 한국말을 잘못해 6년 4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었던 네팔인 노동자 찬드라의 이야기 등 한국에 살면서 동물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전한다.

